

# 네덜란드, 온실원예산업 개황

김 정 섭\*

네덜란드 농림어업자연관리부는 최근 2015년까지의 농업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농업을 위한 선택’(The Choice for Agriculture)이라는 보고서를 간행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농업분야의 각 부문별 전망은 향후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중요한 배경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온실원예부문 전망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온실원예부문은 2015년까지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이며,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온실원예산업 개황

### 1.1. 일반 현황

네덜란드의 온실 원예 부문(버섯 포함)에는 유리 온실 안에서의 과채류와 관상용 식물 재배, 채소 및 과일 가공, 공급, 유통 기업 등이 관련되어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온실 원예 부문 부가가치 창출액은 21% 증가하여 약 48억 유로에 달했다. 전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액 중에서 온실 원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는 19%였는데, 2000년에는 21% 이상으로 성장했다가 다시 줄어들어 2003년에는 20.3%를 차지했다. 1995년에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mailto:jskkjs@krei.re.kr) 02-3299-4252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온실 원예 부문이 창출한 고용은 1.5% 증가하여 6만 6,800ALU(Agricultural Labour Unit 농업노동단위)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온실 원예 부문의 고용 창출 규모는 전체 농업 부문 고용 규모의 거의 17%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온실 원예 부문은 전체 농업 부문과 비교할 때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로 따져 보아도 네덜란드 농업 부문 전체의 그것에 비해 온실 원예 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훨씬 더 크다. 온실 원예 부문의 소득 중 90%가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2003년에 온실 원예 부문 부가가치 생산액 중 1차 생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 이상이었다. 그 해에는 절화가 1차 생산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42%). 그 다음으로는 분화(27%), 온실 채소(23%), 버섯(6%)의 순이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절화 및 분화 수출국이다. 그리고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관상용 식물 부문은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예: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위치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나 벨기에나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기반을 상실해왔다. 이들 나라들에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수출되는 관상용 식물들이 그 시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네덜란드의 관상용 식물 부문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경쟁우위는 전문화된 공급 기업, 물류체계, 높은 수준의 기술적·조직적 지식, 유리한 지리적 입지 등에 기인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온실 채소 부문은 유럽 시장에서 그 기반을 잃고 있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페인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공급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프랑스 산 신선 버섯은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버섯 부문은 계속해서 폴란드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지난 10년 간 네덜란드의 유리 온실 원예 경영체들은 그 수가 3분의 1 정도 줄었다. 2004년에 네덜란드에는 총

6,400개 온실 원예 관련 경영체들이 있었다. 이 중 2,050개는 온실 채소를 재배했으며, 2,940개는 절화를 그리고 1,410개는 분화를 재배했다. 약 10년 동안 버섯을 재배하는 경영체 수는 절반 가량 줄어들어 350개가 되었다. 온실 채소와 분화는 합쳐서 온실 원예 부문 생산액의 26%를 차지한다. 절화가 약 42%, 버섯이 5%를 차지한다.

지난 20년 동안 온실 원예는 채소에서 절화와 분화 재배 분야로 그 중심을 바꾸었다. 유리 온실 면적이 3ha 이상인 경영체들의 재배 면적이 전체 유리 온실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규모 면에서 볼 때 상위 5개의 경영체들이 차지하는 재배면적이 총 온실 채소 재배면적의 4%를 차지한다. 이들 5개 경영체들의 평균 온실 면적은 34ha이다. 상위 10개 경영체들(모든 온실 채소 재배 경영체의 0.5%)의 재배면적은 총 재배 면적의 10%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들의 재배면적은 28ha이다. 한편, 관상용 식물 부문의 규모화는 상대적으로 덜 진전되었다. 재배면적 기준으로 상위 5개 경영체들의 평균 온실 면적은 24ha이며 상위 10개 경영체 평균 온실 면적은 18ha이다. 실제로 온실 1ha 당 필요 노동력은 약 4~5ALU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온실 원예 경영체는 200ALU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표 1 네덜란드 온실 원예 경영체 현황, 2003년

	채소 재배 경영체	화훼 경영체
상위 5개 경영체의 평균 재배면적(ha)	170	120
상위 10개 경영체의 평균 재배면적(ha)	278	181
전체 경영체 수	2,825	5,597
총 재배면적	4,320	5,769

자료: CBS, Agricultural Census

온실 원예 부문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30년 간 온실 원예에 종사하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은 여타의 모든 농업 부문 평균 가구 소득들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온실 원예 부문 소득은 여러 해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으며, 다양한 농가 형태별로 상당한 차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벼섯 재배 농가들의 소득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벼섯 분야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수요가 정체되어 2001년 이후로 경영체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온실 원예 산업은 에너지 소비량을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절반 정도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 온실 원예 부문의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농업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85%가 온실 원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네덜란드의 농업 및 원예 산업은 2000년 기준으로 10%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온실 원예 부문에 문제점들을 초래할 수 있다. 탄소동화작용 촉진을 위한 조명이나 이산화탄소 조사(照射)에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5년 이후로 탄소동화작용 촉진 조명 기술의 사용은 크게 증가하여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경 2배 이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식의 기술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 1.2. 화훼 및 관상용 식물 부문 현황

절화와 분화 마케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경매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네덜란드는 세계 절화류 무역의 중심지이며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 중 일부가 네덜란드 경매 시장에 공급되기도 한다. 경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들 중 25%가 해외에서 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절화류는 유럽에 공급되며, 일부는 다른 대륙으로까지 수출되기도 한다. 네덜란드 경매 시장에서의 거래 집중 현상은 대규모 상업적 거래의 중요성을 뜻한다. 그러나 경매는 각자 확보하고 있는 고정 고객들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수의 무역업자들을 동반하고 있다. 화훼류 경매 시장이 충분한 양의 절화류 묶음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상인들에게 우선적인 시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규모의 롯트(lot)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묶음으로 분할하고 많은 무역업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

는 시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10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점차 경매 시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수의 매매의 편의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소규모 꽃 상점들은 관상용 식물 부문에 있어 중요한 판매 경로를 구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매상들에게 많은 수의 소규모 꽃 상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인점, 원예 센터(garden center), DIY 센터 등이 관상용 식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상용 식물 판매 매장의 규모 확대를 촉발하고 있다.

### 1.3. 온실 채소 부문 현황

네덜란드 온실 채소 부문은 주로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늘 노력했다. 1990년대 초 Wasserbombe(사실상 거의 향이 없는 토마토) 파동 이후, 온실 채소 부문은 고품질 상품 공급에 주력해왔다. 그리하여 ‘Tasty Tom Tomato’ 브랜드 도입 등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약 10년 전에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채소 수출국이라는 지위를 스페인이나 멕시코에 내 주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최근 이력 추적 결과 스페인산 상품에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잔류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스페인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다. 네덜란드 온실 채소 부문의 강점 중 하나는 작물 질병을 통제하는데 생물학적 방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덜란드는 토마토, 단고추, 오이 등의 생산에 있어서는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이다. 터키, 이집트, 스페인 등이 훨씬 더 큰 생산국이다.

과거 10년 동안 인수, 합병, 제휴 등에 기초한 집중화 과정이 진행되어 채소 공급 사슬의 무역 관계를 바꾸어놓았다. 그중 괄목할만한 사례는 9개의 채소 및 과수 경매 시장이 합병된 일이다. 그 이후 1998년에 많은 수의 거래소가 합병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합병은 소매 거래의 규모 확대 경향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 1.4. 버섯 부문 현황

신선 버섯류 수출은 우선적으로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점점 폴란드와의 경쟁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가공 상품 수출은 대체로 프랑스, 독일,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와 중국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섯 재배 경영체의 수는 1990년대 이후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2004년 현재 약 350개의 경영체들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버섯 재배 부문의 상위 5개 경영체들이 신선 버섯 시장 공급 물량의 2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상위 5개 경영체들이 가공품 원자재로 공급하는 버섯의 양은 전체 가공용 버섯의 30%를 차지한다. 네덜란드의 버섯 절임류 시장은 두 개의 민간 경영체 Lutèce와 ProChamp가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기업은 사실상 체인 조직인데,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소매까지 그 망을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버섯 절임류 산업은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산업이 그 수출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상품과 마케팅 컨셉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신선 버섯 시장에서는 두 세 개의 대규모 생산자와 많은 수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자들은 소매 부분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거래한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화되지 않은 소규모 생산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경매 시장이나 마케팅 전문 회사에 공급한다.

## 2. 온실원예부문 변화의 동력

### 2.1. 시장, 공동농업정책, WTO

네덜란드 온실 원예 부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럽 시장에서 소비자 수는

사실상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수요 증대는 일인당 소득 증대에 좌우될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는 연간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간, 값비싼 원예 상품과 전처리 상품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 상품들은 건강, 편의성, 체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될 것이다.

관상용 식물과 온실 채소 부문은 강력한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온실 채소 부문의 시장 지위는 점증하는 경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EU의 확대는, 비록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겠지만, 온실 채소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 기회는 대체로 신규 회원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신장에 좌우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상품들은 사치스러운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화훼와 관상용 식물 부문은 수출 증가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 채소 부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동유럽의 온실 원예 산업은 한 동안 네덜란드에는 중대한 위협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온실 원예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수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회원국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EU는 가장 중요한 온실 채소 시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먼 거리에 있는 나라들(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의 판매 또한 소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들에서 다른 나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U 신규 회원국들에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태에 머물 전망이다. 슈퍼마켓이 가장 중요한 판매 경로로서 기능할 것이며, 다수의 식품 공급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촉진할 것이며 신선도와 재배 방법에 대한 보증을 촉진할 것이다. 전처리 채소 상품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의 전처리 상품들은 대형 소매유통업체들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화훼류나 관상용 식물은 대부분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다. 유럽 외 국가에서의 판매는 유로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1. 품질

시장과 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식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중요한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허가는 온실 원예 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몇 가지 중요한 품질보증체계(Eurep-GAP, HACCP, ISO 인증 등)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표준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독특한 판매 상의 강조점(selling point)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지원을 받는 이력추적 장치를 장착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 2.1.2. 버섯

버섯 절임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그와 동시에 편의성과 조리 용이성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젊은 소비자층을 상대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공 버섯 상품 시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신선 버섯 시장도 제한적이거나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동결 버섯 시장도 소폭 확대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 시장에서의 수요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공급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2.1.3. EU의 정책

온실 원예 산업은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으로부터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은 언제나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었던 버섯 부문에도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입 쿼터제를 통해 중국산 버섯 절임 상품으로부터 유럽 시장이 보호받고 있었다. 단기간 내에 쿼터가 축소된다면 유럽의 버섯 절임류 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선 상품 생산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2.2. 환경

작물 보호와 에너지는 온실 원예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주의를 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EU는 최근에 농업 투입재의 성분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네덜란드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 **2.2.1. 작물 보호**

노지 절화 재배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양액 재배나 생물학적 제재의 사용 증가가 예상된다. 네덜란드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이 EU 법규보다도 더 엄격하기 때문에, 새로이 강화된 EU 법규도 사실 네덜란드 온실 원예 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농약 잔류량 제한에 더 큰 정책 관심이 기울어질 것이다.

### **2.2.2. 에너지**

최근의 원유 가격 상승에 뒤따를 고효율 에너지(가스) 가격의 변화가 온실 원예 경영체의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재배 작물에 따라서는 에너지 비용이 총 비용의 10~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높은 에너지 가격은 구조적인 조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경영체들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 원예 부문의 효율성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와 에너지 소비형 기술(탄소동화촉진 조명)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 자유화는 에너지 소비적인 경영체들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 **2.2.3. 비료 정책**

온실 원예 산업은 원칙적으로 폐쇄된 영양성분 공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비료와 관련한 정책적인 제한이 있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EU 또한 온실 부문의 비료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 2.2.4. 버섯

환경정책이 버섯 부문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암모니아 방출이나 폐수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들은 대체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미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작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는 향후 수년 간 버섯 부문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련 협정은 버섯 부문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갖지 않을 것이다. 버섯 부문에서 사용되는 말과 닭의 축분은 ‘축산분뇨 법(Manure Act)’이 정하고 있는 수준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버섯 부문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축분 비료와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EU의 ‘수자원 기본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토양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장래에는 지하수를 끌어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 2.3. 공간

전통적으로 온실 원예 산업은 네덜란드의 서부 지역과 Venlo 주변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기후 조건이 좋고 인구 밀집지역이며 물류상의 결절점과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로테르담 항구 개발, 암스테르담 스치폴 공항 주변 무역 클러스터의 출현, 온실 원예 산업의 고품질 상품 공급 전략 채택 등은 모두 날마다 대량의 신선 상품을 유럽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클러스터로 진화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이렇듯 여러 해에 걸쳐 식품 원예 부문은 고품질 생산 단지, 혁신적인 유통 기업, 신선 상품 유통과 국제 무역을 위한 기지 등으로 분화 발전했다.

화훼 및 관상용 식물 부문에서는 주로 알스미어(Aalsmeer)와 웨스트랜드(Westland) 지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간적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알스미어와 날드위크(Naaldwijk)의 두 물류 센터는 인근 지역에 고품질 상품을 공급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알스미어와 웨스트랜드 다음으로 중요한 생산 지역들은

림부르크(Limbrug) 북부 지역, 아른헴(Arnhem) 지역, 엠멘(Emmen) 인근 지역, 노스 브라반트(North Brabant) 지역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는 일차 생산 외의 부문들, 예를 들면 각종 서비스 공급자나 도매상 등의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온실 원예 산업은 단지 농업 부문이 아니라 토지 가격을 놓고 도시 부문의 여타 산업과 경쟁하는 방대한 산업 부문이다. 온실 원예 부문의 성장은 지역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변경은 지역의 공간계획 정책에 좌우될 것이다.

## 2.4. 기술

온실 원예 산업은 자본집약적이며 기술에 의해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구체적인 응용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새로운 기술 발전의 영역으로 예견되고 있다.

- ① 필요 노동력과 이동량을 감축하기 위한 자동화 기술
- ② 공간의 다면적 활용 기술(온실의 사무실 용도, 다층 온실, 수상 온실 등)
- ③ 해외 수송 기술(지능형 컨테이너)
- ④ 환경보호와 에너지 보존에 초점을 맞춘 센서 및 통제 시스템에 의한 재배 최적화 기술
- ⑤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품질 개선 기술

시장은 기술 발전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영체들로 하여금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로보틱스 등과 같은 신기술을 토대로 지속적인 변화와 효율성 개선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은 더욱 큰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다시 온실 원예 부문의 규모화를 촉진할 것이다.

### 3. 온실원예산업의 전망

네덜란드의 온실 원예 산업은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거둘 것이며, 2015년 경에는 전체 농업 부문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표 2 네덜란드 온실 원예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고용 전망

	부가가치 생산액				고용			
	2003		2015		2003		2015	
	(100만 유로)	%	(100만 유로)	%	ALU	%	ALU	%
<b>재배 부문 합계</b>	3,237	67	4,125	71	43,039	64	40,477	64
온실 채소	456		507		11,484		10,598	
절화	1,553		2,081		19,808		18,840	
분화	861		1,155		10,306		9,798	
버섯	368		382		1,441		1,240	
<b>가공</b>	50	1	66	1	588	1	539	1
<b>생산지원부문 합계</b>	1,168	24	1,315	22	16,710	25	16,380	26
농업 서비스	28		32		1,089		1,126	
가스, 전력, 물	119		130		719		793	
도매	131		148		3,796		3,894	
은행, 보험	221		250		5,070		5,202	
<b>물류</b>	358	7	408	7	6,515	10	6,707	11
<b>온실원예산업 전체</b>	4,799	100	5,848	100	66,827	100	63,565	100
전체 농업부문 대비 %	20.3		21.7		16.8		18.2	
수출 의존도	88		90		88		87	

자료: LEI

온실 원예 부문이 창출하는 고용은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5% 감소). 온실 원예 부문 중에서도 특히 관상용 식물 판매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온실 채소 판매액도 증가할 것이다. 주요 상품 수출은 향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절화와 분화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토마토와 단고추 수출도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온실 원예 산업의 수출 의존도는 2015년쯤에는 9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 원예 산업은 계속해서 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숙고할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품질표시(예: MPS-Qualified, HACCP 등)나 이력추적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상품을 보증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이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자료 : <http://www.lei.dlo.nl>(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